August 24, 2021

Domestic News

증권가, 오는 26일 금통위 금리 인상 전망 우세



오는 26일 예정된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증권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상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003540)과 하나금융투자는 인상, NH투 자증권(005940)은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균형의 시정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지목한 바 있다. 이후 직전 금통위인 7월에는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준까지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채권 시장 전문가 사이에서도 동결과 인상 가능성이 50대 50으로 박빙인 가운데 델타변이는 어느 정도 단기변수, 현 정부 임기말 금융권 관리 기조가 가계부 채 안정화로 변화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급등세 또한 계속되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화 관점에서의 조치가 선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 등도 우리가 8월 기준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이유"라면서 인상에 방점을 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5017477

<u>화이자 백신 승인 소식에 나스닥 최고치..."코스피도</u> <u>기대감↑"</u>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 등을 호재로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 치를 경신했다.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지연 기대감과 중국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한 우려가 옅어진 것도 24일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전면 승인했다는 소식에 강세였다.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1% 상승했고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전날보다 0.85%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5% 오른 1만4942.65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개별 기업의 호재성 재료로 상승한 점 긍정적"이라며 "더불어 중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M&A(인수합병) 승인 소식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3% 상승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봤다.

 $\underline{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635167}$

"12조 상속세 때문에..." 삼성家, 결국 집까지 팔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장충동1가 저택을 196억원에 사들였다. 23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부장은 이건희 회장의 유산인 장충동 1가의 저택을 196억원에 매입했다. 이 저택은 대지 면적 2033㎡, 연면적 901㎡ 규모다.

이건희 회장은 2012년 설원식 전 대한방직 부인인 임희숙 씨 소유 단독주택이던 이 건물을 대한 자산신탁을 통해 350억원에 매입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올해 5월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이저택을 공동 상속했고, 두 달 만에 이 부장이 이를 매입했다.

최근 삼성가 유족들은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이건희 회장 소유 주택과 유산을 정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가 종손인 이 부장이 저택을 사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underline{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595122}$

Overseas News

Afghanistan fallout engulfs Harris' first day of Southeast Asia trip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undertaking a suddenly high-stakes visit to Southeast Asia this week amid the first major foreign policy crisi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on the receiving end of questions Monday about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chaotic fall of Kabul.

Harris' stops in Singapore and Vietnam have assumed outsized importance for their potential to reassure foreign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continued commitment to its allies.

Yet on Monday, reporters beamed in on a monitor from another room to pepper Harris on the tumultuous Afghanistan exit as she stood alongside Singapore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 in a joint press conference after their first bilateral meeting, providing a first look at how the vice president is approaching the unfolding crisis.

https://edition.cnn.com/2021/08/23/politics/kamala-harris-singapore-afghanistan/index.html

Tokyo Paralympics: A 'different' Games but Paralympians still hope to shine



The Tokyo Paralympics get under way on Tuesday, with Covid-19 cases rising in Japan and all parties acknowledging that there is still a challenge ahead.

Delayed by a year because of the pandemic and with supporters unable to attend apart from a small number of schoolchildren, these will be a different Games to any previous edition.

But not only do organisers want top-level competition, they also want the Games to play a big part in making Japanese society more inclusive. Tokyo is the first city to stage two Paralympic Games, having hosted the 1964 edition when 375 athletes from 21 nations took part in nine sports. This time, around 4,400 athletes from 162 national Paralympic committees will compete in 539 medal events across 22 sports.

https://www.bbc.com/sport/disability-sport/58306545

Anti-Taliban resistance group says it has thousands of fighters



The arrival of the highly infectious Delta variant "does raise some big questions" about New Zealand's pandemic response, a minister has said.

Covid-19 response minister Chris Hipkins said the variant "changes the game considerably" and makes existing protections "look less adequate".

Speaking to the media on Sunday, Mr Hipkins said eliminating the virus inside New Zealand was still the government's aim. "The reality though is that a virus that can be infectious within 24 hours of someone getting it - that changes the game considerably," he told the televised Q+A political talk show on Sunday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239156

Domestic Market Issue

<u>서울시 '한강변 층고 완화'에 국토부 "시장 안정이</u> 우선"..'사실상 난색'



서울시가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강변 아파트 15층 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자 정부가 시장 안 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계획은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되는 아파트를 15층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해왔다. 부동산업계에선 서울시의 이번 검토 입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공약 이후 신속한 규제완화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만회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표면적으론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인식이 같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의 규제 완화 검토에 대해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시장 교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 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1155212/20210822063010036

자산 2조'SK리츠, IPO 수요예측 도전

8월 23~27일 주식자본시장 주요 일정 주요일정 공모 규모 발행사 희망 공모가 밴드 주관사 (수요예측) (밴드 하단 기준) SK리츠 23~24일 2325억원 5000원 한국, 삼성, SK, 하나금투 에이비온 24~25일 330억원 1만4500~1만7000원 미래, 한화, 유진 와이엠텍 2만1000~2만5000원 25~26일 126억원 KB증권

이번주(8월 23~27일) SK리츠와 에이비온, 와이엠텍 등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관 투심잡기에 나선다. SK리츠의 경우 자산 규모만 2조원에 달하는 '공룡 리츠'로 꼽힌다는 점에서 리츠 흥행세를 이어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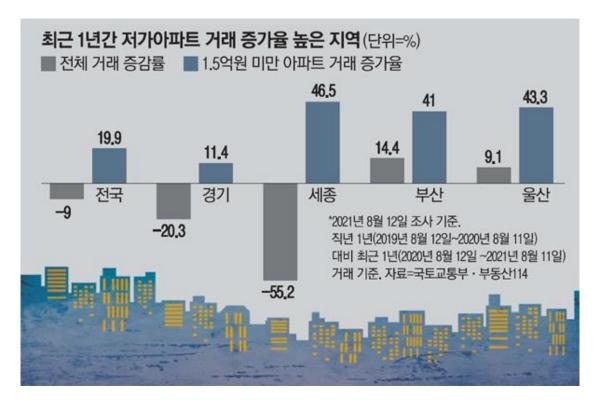
SK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SK리츠)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8월 30일~9월 1일 청약을 거쳐 내달 중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예정이다. 공모 규모는 2325억원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가 주관 업무를 맡았다.

SK리츠의 기초자산은 SK서린빌딩과 클린에너지 리츠 지분이다. SK리츠가 SK서린빌딩을 실물 자산으로 직접 매입하고, 자리츠인 클린에너지 지분 100%를 확보해 편입하는 구조다. 클린에너지리 츠는 SK에너지의 116개 주유소와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underline{\text{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8201529168680109519\&lcode=00\&page=1}\\ \underline{\text{\&svccode=}00}$

메리츠증권,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신평사

예의주시



메리츠증권의 해외 대체투자를 놓고 신용평가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세우고 우발부채 규모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해외 대체투자 관련 셀다운 작업이 사실상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며 자산건전성이 저하됐다.

그러나 단기적 신용도 하향 압박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메리츠증권이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하면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선제적으로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 능성을 인식한 영향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메리츠증권이 국내외 대체투자 관련 익스포저를 줄였으나 자산건전성 저하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체 우발부채와 대출금 중 해외 대체투자 비중이 커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분기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밝히고 우발부채를 줄이고자 안간힘을 써왔다. 그 결과 2019년 말 8조5328억원이었던 우발부채 규모가 올 1분기 말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또 우발부채/자기자본도 214.2%에서 82.5%로 줄었다.

 $\underline{\text{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8171445472640101958\&lcode=00\&page=2}\\ \underline{\text{\&svccode=}00}$

Rexford Industrial makes two acquisitions for \$194.4m



Rexford Industrial Realty has acquired two industrial properties for \$194.4 million. The acquisitions were funded using cash on hand.

"These investments, acquired through off-market transactions, demonstrate the company's programmatic and proprietary approach to identifying exceptionally well-located, off-market 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substantial, above-market return on investment and cash flow growth within infill Southern California, the nation's lowest-supply and highest-demand industrial market," said Howard Schwimmer and Michael Frankel, Co-Chief Executive Officers of Rexford Industrial.

The company acquired 8210-8240 Haskell Ave, located in Van Nuys, within the LA – San Fernando Valley submarket for \$12.4 million or \$233 per square foot and acquired 3100 Lomita Blvd, located in Torrance, within the LA – South Bay submarket for \$182.0 million or \$316 per square foot. The 91% leased, 575,976 square foot, five-building light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campus is located in Western Torrance on 26.6 acres of land within a premier infill South Bay location.

 $\underline{https://www.creherald.com/rexford-industrial-makes-two-acquisitions-for-194-4m/}$

Savills IM sells trading estate in North London to Goodman



Savills Investment Management has sold Mowlem Trading Estate in Tottenham, North London to Goodman for an undisclosed sum.

Savills IM said Mowlem Trading Estate has excellent accessibility to the A406 North Circular Road, M25 and M11, making it an exceptional location for occupiers serving both Central London, Greater London and the South East.

"The asset was marketed as an opportunity to acquire a prime multi-let industrial estate in Greater London offering reversionary income potential underpinned by long-term residual value," said the company in a press release.

https://www.creherald.com/savills-im-sells-trading-estate-in-north-london-to-goodman/

CenterSquare, Arch form JV to invest in service properties



CenterSqua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quare) and Arch Street Capital Advisors (Arch) have formed a joint venture (JV) to invest in high-end service properties in the Sunbelt region of the United States.

"Supporting the strategy is an acquisition financing facility from Barclays, providing the JV the ability to acquire approximately \$150 million of properties," said CenterSquare.

Since the formation in July, the JV has closed three separate transactions, acquiring four properties located in Orlando, Houston and Atlanta. The joint venture is actively seeking new service property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7-20 million price range.

https://www.creherald.com/centersquare-arch-form-jv-to-invest-in-service-properties/

Daily FX Update

Exchange Rate

통화명	전일 환율 (원)	당일 환율 (원)	전일 대비
미 달러화 (USD)	1176.7	1174	▼ 0.23%
위안화 (CNH)	181.04	180.71	▼ 0.18%
유로화 (EUR)	1376.03	1379.04	▲ 0.22%
일본 엔화 (100 JPY)	1070.94	1070.34	▼ 0.06%
영국 파운드화 (GBP)	1603.08	1611.37	▲ 0.52%
싱가포르 달러화 (SGD)	863.54	865.62	▲ 0.24%
스웨덴 크로나화 (SEK)	133.54	134.74	▲ 0.90%
노르웨이 크로네화 (NOK)	130.19	131.73	▲ 1.18%
덴마크 크로네화 (DKK)	185.05	185.43	▲ 0.21%
캐나다 달러화 (CAD)	917.72	927.95	▲ 1.11%
뉴질랜드 달러화 (NZD)	803.92	809.59	▲ 0.71%
호주 달러화 (AUD)	840.1	846.92	▲ 0.81%
홍콩 달러화 (HKD)	151.05	150.66	▼ 0.26%



1,170.20원 전일대비 ▼1.80(-0.15%)

🗟 2021.08.24 11:01 하나은행 | 고시회차 15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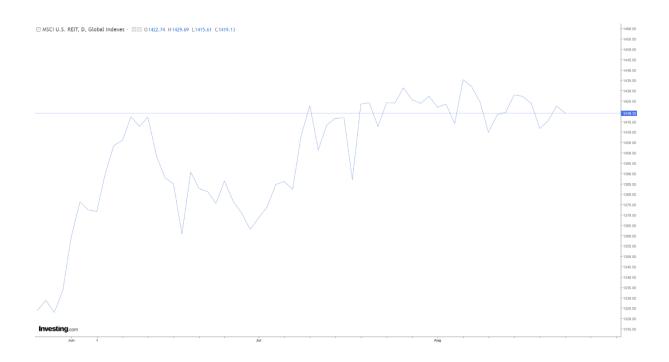
Key Real Estate Index

리츠인프라 우선주 혼합지수 - KRX



리츠인프라·우선주 혼합지수는 거래소 상장종목 중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종목 및 인프라(사회기 반시설투·융자회사) 종목과 유가증권시장의 우선주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되, 리츠와 인프라 등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종목의 편입비중을 높여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MSCI US REIT Index



Dow Jones Global~ Index

